

刻手の 所用諸具 研究*

- 1850년 전후의 의궤기록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Tools used by Engravers around 1850

김 상 호 (Kim, Sang-Ho)**

최 혜 정 (Choi, Hye-Jeong)***

◁ 목 차 ▷

1. 緒言	3.1 玉冊 및 玉寶
2. 木刻手の 所用諸具	3.2 表石 및 誌石
2.1 木板	4. 所用諸具의 類型
2.2 木活字	5. 結言
3. 玉刻手와 石刻手の 所用諸具	<참고문헌>

<초 록>

조선왕실의 의궤는 목각수와 옥각수 및 석각수의 이름과 시상내용, 그리고 그들이 사용한 여러 도구와 물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이 많다. 오늘날 주요 판본의 복원사업이 이루어지고, 각수의 전통적인 작업을 재현하는 곳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각수의 소용제구를 밝히는 것은 또 다른 의미가 있다. 본 논문은 현전하는 의궤를 전수 조사한 것이 아니고, 논의의 편의상 1850년 전후에 작성된 다섯 건의 서로 다른 성격의 의궤인 『국조보감감인칭의궤』, 『헌종국장도감의궤』, 『선원보략수정의궤』, 『순원왕후가상존호도감의궤』, 『헌종실록칭의궤』를 중심으로 당시 목판과 목활자, 옥책과 옥인, 표석과 지석에 글자를 새긴 목각수, 옥각수, 석각수가 사용했던 도구와 물자의 종류, 수량을 비교 검토하였다. 그 결과 그들이 공히 사용한 도구는 각도와 등상, 여석, 산저모, 도소라 등이었고, 목각수보다는 옥각수, 옥각수보다는 석각수가 더 소소하게 쓰는 물품이 많았다는 사실 등이 드러났다.

要語: 각수, 의궤, 도구, 각도, 숫돌

<ABSTRACT>

Uigwes are an elementary book sources to identify the activities of engravers. Many uigwes include contents about engravers: lists of engravers, awards, used tools, etc. Recently, as restoration of wood blocks are carried out for special printed books and traditional works of engraving are reproduced at several places, it is needed to study on the tools used by engravers for describing traditional engraving works precisely. This study based on the five type of books, Gukjobogam-uigwe, Gukjangdogam-uigwe, Seonwonboryaksujeong-uigwe, Jonhodogam-uigwe, Silrokcheong-uigwe written around 1850, especially focus on the kinds of tools used by engravers. Major result of this study is revealed the fact that the basic tools used by engravers in Joseon Dynasty were graving knife, table, whetstone, pig bristles and earthenware saucer. And another fact that stone engravers used much more supplies than the others also become clear.

Key words: engraver, uigwe, tools, graver, whetstone

* 이 논문은 2015학년도 대구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에 의한 논문임.

** 대구대학교 기초과학대학 교수(sanghkim@daegu.ac.kr) (제1저자)

*** 대구미래대학 조교수(choimrskim@hanmail.net) (공동저자)

■ 접수일: 2017년 3월 2일 ■ 최초심사일: 2017년 3월 12일 ■ 심사완료일: 2017년 3월 24일

1. 緒言

조선시대에 각수들이 글자를 새겨낸 건 비단 책판만이 아니었다. 편액을 비롯해서 목활자, 옥책, 죽책, 비석 등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 유형에 따라 각수가 조금씩 다른 도구와 물자를 사용했다는 사실은 의궤의 기록을 통해서 잘 드러나는 바다.

구체적으로는 목판에 대해서는 그 전본의 수가 많은 璿源譜略修正儀軌나 다수의 각수를 동원한 기록이 있는 國朝寶鑑監印廳儀軌, 목활자에 대해서는 實錄廳儀軌, 비석에 대해서는 國葬都監儀軌, 그리고 옥책에 대해서는 嘉禮都監儀軌, 尊崇都監儀軌, 上號都監儀軌, 國葬都監儀軌 등이 특별히 참고할만한 자료이다. 해당 자료의 양이 많아서 한 편의 논문으로는 담아내기 어려울 정도다.

문제는 일제강점기를 거치면서 전통적인 작업이 단절된 이유로 의궤에 적시된 도구와 물자의 이름이 낯설고, 그 용도를 파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더구나 비교적 근자의 것이라 할 수 있는 고종 연간에 작성된 의궤들의 경우는 단지 工錢으로만 계산해놓아 각수의 일에 사용된 도구나 물자를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오늘날 전통적인 판각 방식에 대한 학계나 일반인의 관심은 적지 않다. 주요한 목판본의 복원사업 또한 여기저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각수들이 작업할 때 사용한 도구와 물자는 아직까지 제대로 밝혀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각수의 전통적인 판각기법을 보다 자세히 이해하고, 나아가 작업공간을 재현함에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木刻手, 玉刻手, 石刻手가 사용한 도구와 물자, 그 종류와 수량, 그 성격과 특징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조사대상 의궤는 1850년을 전후로 해서 작성된 다섯 가지 주요 의궤, 1848년의 『國朝寶鑑監印廳儀軌』, 1849년의 『憲宗國葬都監儀軌』, 1850년의 『璿源譜略修正儀軌』, 1852년의 『純元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와 『憲宗實錄廳儀軌』로 한정함을 아울러 밝혀둔다.

2. 木刻手の 所用諸具

2.1 木板

1848년에 작성된 『國朝寶鑑監印廳儀軌』는 1847년 2월부터 1848년 10월까지 사이에 만들어진 정조와 순조, 익종의 3대 國朝寶鑑의 제작과정을 기록한 것이다. 사역에 참여한 工匠의 명단과

施賞 내용, 각수가 필요로 했던 도구와 물자가 포함되어 있다.

대규모 간행사업이었던 만큼 校書館의 工匠뿐만 아니라 한양을 비롯해서 경상도, 평안도의 민간 각수가 다수 동원이 되었다. 개개인의 명단은 권말 ‘工匠’ 부분에 보인다. 다만 ‘賞典’을 참고하면, 校正都刻手 劉光彌를 포함한 20명의 각수가 1등, 外方刻手 李允夏 등 14명의 각수가 2등, 外方刻手 李聖哲 등 8명의 각수가 3등으로 분류되었는데, 이와 같이 20명의 京刻手와 22명의 鄉刻手의 施賞 등급이 다른 것은 무엇보다 일한 날짜가 다른 때문일 수 있다. 1848년 8월 14일자 甘結 안에서 刻手와 鄉刻手로 구분해 진배하라고 요구된 각수의 所用諸具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표 1> 국조보감 각수의 소용제구

품목	수량	
	京刻手	鄉刻手
登床	5坐	5坐
正布(臺床布次)	40尺	44尺
山猪毛	1斤	-
膠末	1斗/8斗	-
刻刀	20柄	22柄
鏡子鐵	8箇	-
5寸釘	22箇	22箇
2寸釘	44箇	44箇
中礪石	2塊	1塊
延日礪石	2塊	1塊
炭	매일2升	매일5升
水甕	-	2坐
燒木	-	반반丹
燈油	-	3夕

登床은 모두 10坐로 1坐당 각수 4명이 사용한 셈이다. 주요 도구와 물자를 각수 1명당으로 환산하면 正布는 2尺, 刻刀는 1柄이 돌아간다. 크고 작은 못은 登床과 마찬가지로 각수 인원과 관계없이 같은 양이 요구되었다. 무려 144명의 각수가 동원된 1783년의 『國朝寶鑑監印廳儀軌』와 所用諸具를 비교해보면, 家猪毛가 山猪毛로 바뀐 것 외에 큰 차이는 없다. 登床의 수는 사실 그 크기나 인원별 동원시기에 따라서 얼마든지 다르게 해석될 수 있는 부분이다. 膠末이 1斗, 8斗로 따로 기입이 된 건 오류인 듯하다. 1783년의 『國朝寶鑑監印廳儀軌』를 참고하면, 거기엔 膠末이 단 1斗만 필요한 것으로 기술되어 있다.

위 표에는 鄉刻手의 경우 특별히 山猪毛, 膠末, 鏡子鐵 등의 품목이 없고, 中礪石와 延日礪石은

그 인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필요한 수량이 적은 것으로 나온다. 공동으로 사용해서 그런지 이유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매일 집으로 돌아갈 수 있는 京刻手와 달리 鄉刻手が 밤에 불을 밝히고, 방을 덥힐 연료, 등유와 땀감, 숯, 그리고 물을 저장할 독이 필요했다는 사실 정도는 위 표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監印廳이 1849년 3월 22일자로 戶曹에 보낸 移文에는 그간 사용했던 물자의 ‘實入’과 ‘用還’이 기입되어 있다. 그 중 후자에 포함된 것은 長臺床 17坐를 비롯해서 鏡子鐵 8箇, 臺床布 32件 64尺, 5寸釘 48箇, 2寸釘 96箇, 中礪石 6塊, 延日礪石 9塊, 刻刀 31柄 등이다. 각수만이 아니라 다른 장인들이 사용하고 남은 것도 포함해서 수량이 적지 않은데, 刻刀가 31柄에 불과한 것은 아마도 校書館에 소속된 13명을 제외하고 민간각수 31명에게서만 그것을 돌려받은 때문이 아닌지 의심된다.

1850년에 작성된 『璿源譜略修正儀軌』는 1849년 11월부터 1850년 6월까지 사이에 이루어졌던 璿源譜略 수정의 일을 기록한 것이다. 각수에 대한 施賞과 각수가 필요로 한 도구와 물자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다. ‘賞典’에 劉光弼 등 24명의 각수가 1등에 분류된 것으로 나오지만 따로 ‘工匠秩’이 없어서 각수 개인의 이름은 확인할 수가 없다. 國朝寶鑑을 간행할 때 참여했던 京刻手들이 상당수 중복될 것으로 여겨진다. 1850년 3월 23일자 甘結을 통해 요구된 각수의 所用諸具를 정리하면 <표 2>와 같다.

<표 2> 선원보략 각수의 소용제구

품목	수량
長臺床	10坐
臺床布	50尺
山猪毛	10兩
臺床朴只3寸釘	50介
刻刀	50介
校正釘	80介
2分召史	5介
3分召史	5介
中礪石	5塊
延日礪石	10塊
木賊	半斤

<표 2>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璿源譜略을 간행할 때 각수들이 사용할 수 있게 진배토록 요구한 도구와 물자는 國朝寶鑑을 간행할 때와 비교하면 연료를 제외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다. 지방에서 올라온 각수들이 없었고, 판각할 때 날도 출지 않았기 때문일 것이다. 炭, 燭은 난방에

위해 쓰이기도 했고, 쇠를 달구기 위해서 쓰이기도 했다. 1739년의 『璿源譜略改修正時校正廳儀軌』에는 刻刀를 沉鍊하기 위한 용도로 그것이 나와 있다.¹⁾ 그리고 이와 같은 기록은 영조 연간에 작성된 의궤에서 꾸준히 보인다.

각수인원을 기준으로 하면 長臺床이나 臺床布, 刻刀, 校正釘 등의 수량은 國朝寶鑑을 간행할 때에 비해 많고, 이는 <표 3>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18명과 17명의 각수가 동원된 1848년과 1853년의 앞뒤 『璿源譜略修正儀軌』와 비교해도 많다. 왕위교체로 수정사항이 많고, 어느 때보다 많은 인원의 각수가 동원될 것으로 미리 예상해서 넉넉하게 요구한 결과로 해석된다.

<표 3> 1848, 1853년 선원보략 각수의 소용제구

품목	1848년	1853년
長臺床	5	5
臺床布	20	24
刻刀	20	20
校正釘	48	40

2.2 木活字

목활자를 제작한 각수들이 사용한 도구와 물자를 확인할 수 있는 주요한 의궤는 정작 금속활자로 인출한 역대 실록의 의궤들이다. 1850년 전후에 작성된 의궤로 그 연대가 가까운 것은 1852년의 『憲宗實錄廳儀軌』로 1849년부터 1852년까지의 憲宗實錄 찬수과정을 담았다. 실록을 인출하는 와중에 부족한 활자를 간단없이 제공하는 소임을 맡았던 각수의 所用諸具는 일부 甘結과 別工作手本에 나타난다. ‘工匠秩’이 없어서 10명의 각수 명단은 확인이 되지 않으나, 刻手 高崙鎭 등 10명의 인원이 均字匠, 印出匠 등과 더불어 2등에 해당된 상, 즉 木 1疋과 布 1疋을 받은 것으로 ‘賞典’에 기입이 되어 있다. 그들이 사용할 도구와 물자는 1851년 윤8월 17일자 甘結에 포함되어 있다. 그 後錄된 내용을 정리하면 <표 4>와 같다.

<표 4>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각수가 목활자를 만들 때 소용된 도구와 물자는 어느 때보다 간단하다. 같은 날짜, 1851년 윤8월 17일자의 別工作手本을 참고하면, 刻手匠에게 소용되는 長登床 4좌, 刻刀 20柄을 만들기 위해 필요한 물자들이 나온다. 동원된 각수인원이 10명이었다는 사실을 감안하면 더 타당한 수치이다. 그렇다면 甘結의 내용은 단지 전례에 따라 초기에 필요한 양을 요구한 것일 수 있다. 刻機는 어떠한 물건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다만 哲宗實錄을 간행할

1) 刻刀沉鍊次炭三斗

때에도 3件이 요구된 사실이 있다.²⁾

<표 4> 헌종실록 각수의 소용제구

품목	수량
大登床	1坐
膠末	5升
刻刀	3箇
鐙子金	1箇
刻機	3件
中礪石	1塊
延日礪石	1塊
炭	每日 2升
陶所羅	1坐

3. 玉刻手와 石刻手의 所用諸具

3.1 玉册 및 玉寶

玉刻手が 玉册이나 玉寶를 새길 때 필요로 한 도구와 물자를 살펴볼 수 있는 1850년 전후의 자료는 1852년에 작성된 『純元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이다. 1852년 2월 純祖 妃인 純元王后에게 尊號를 加上하는 과정을 기록한 것으로 刻手에 대한 施賞과 玉册 등의 제작을 관장한 1房과 玉寶 등의 제작을 관장한 2房의 玉刻手 명단, 그리고 그들의 所用諸具 등이 담겨 있다.

먼저 ‘賞典’을 보면, 玉刻手 중에서 朴春根 등 2명이 1등, 李世榮 등 2명이 2등, 安廷舜 등 2명이 3등인 것으로 나오는데, 따로 1房의 ‘工匠’에 기입된 玉刻手는 朴春根, 李世榮, 玄德龍, 李廷舜, 李學奎 등 5명이고, 2房의 ‘工匠’에 기입된 玉刻手는 李學圭, 車昌臣, 趙今龍 등 3명이다. 양쪽 房에 중복된 李學奎(圭)를 고려해도 한 명이 빈다. 자세하지 않으나, 아마도 작업한 날짜가 부족해서 시상 대상에서 제외된 것으로 판단된다.

1852년 정월 17일자 稟目을 통해서 요구된 1房 玉刻手의 소용 雜物, 그리고 그 전날의 稟目을 통해서 요구된 2房 刻手의 소용 雜物을 함께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2) 哲宗實錄廳儀軌

<표 5> 순원왕후가상존호도감 각수의 소용제구

품목	수량	
	玉刻手	刻手
長登床	3坐	-
沙芝板	10立	-
山猪毛	1兩	1兩
磨正舍木	10箇	-
刻刀	30箇	-
刻釘	30箇	-
水團了赤	10箇	-
强礪石	5塊	2塊
中礪石	1塊	2塊
延日礪石	2塊	-
獐皮	1張	-
常綿子	5錢	-
綿紬手巾	1件	2件
手巾布	10尺	-
木/果瓢	각2箇	-
陶所羅	10箇	-
白紙	2卷	-
前排櫝子具鎖鑰	1部	-
刀子	-	5柄
釘	-	2箇
炭	-	10斗

<표 5>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1房과 2房的 각수가 필요로 한 도구와 물자는 그 종류나 수량에서 비교적 큰 차이가 난다. 일의 양과 각수 인원에서 차이가 컸기 때문일 것이다. 다만 2房的 각수가 玉寶를 새길 때 필요로 한 刀子나 釘은 비록 이름은 달리 쓰였지만, 1房 각수의 刻刀나 刻釘과 그 용도가 크게 다르지 않아 보인다. 1852년 정월 29일자의 別工作 手本에 특별히 1房的 玉刻手が 쓸 長登床과 沙芝板, 磨正舍木, 刻刀, 刻釘, 水團了赤, 그리고 2房的 刻手が 쓸 刀子와 釘의 제작 수량이 나와 있는데, 이는 위 표의 수치와 정확히 일치한다. 다만 이를 謚冊과 謚寶 등의 제작을 관장했던 <표 6>의 憲宗國葬都監의 3房 玉刻手와 刻手匠의 所用諸具와 비교하면 상당한 차이가 있다.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바와 같이 『憲宗國葬都監儀軌』의 경우에 長登床이나 刻刀와 같은 기본적인 품목은 제외된 채 소모품에 불과한 것들만이 적혀 있다. 그 이유는 자세하지 않으나, 國葬都監 안팎에서 해당 각수들이 유사한 일을 하고 있던 것으로 의심해 볼 만하다. 3房的 '工匠秩'에 기입된 玉刻手는 朴春根을 비롯해 17명이나, '賞典'을 보면 상을 받은 각수는 15명뿐이다. 각수

朴春根 등 2명이 1등, 각수 安鼎弼 등 3명이 2등, 각수 玄德龍 등 10명이 3등으로 분류되어 각기 木 2필과 布 1필, 木 1필과 布1필, 木 1필을 받았다.

<표 6> 헌종국장도감 삼방 각수의 소용제구

품목	수량	
	玉刻手	刻手匠
山猪毛	2兩	-
家猪毛	2兩	-
强礪石	5塊	-
簞皮	1張	반반張
(綿)紬手巾	5件	1件
布手巾	5件	1件
黃蜜	2兩	-
眞粉	4錢	-
白休紙	2斤	-
破帳布	10尺	-

3.2 表石 및 誌石

1849년에 작성된 『憲宗國葬都監儀軌』는 1849년 6월에서 10월 사이에 치러진 憲宗의 國葬 과정을 상세히 기록한 것이다. 이미 앞에서 살펴본 3방의 玉刻手 뿐만 아니라 表石所와 誌石所에서 일한 石刻手 인원과 그들이 사용한 도구와 물자에 관한 사항이 함께 담겨 있다.

우선 表石所가 제작을 맡은 表石은 길이가 7尺 4寸 5分, 너비가 2尺 3寸 2分, 두께가 1尺 7寸 6分으로 각수는 表石 전면에 3行 9字, 후면에 6行 138字를 새기는 일을 맡았다. 表石所의 '工匠秩'에 등록된 각수는 李世榮, 李仁奎, 李恒默 등 3명이다. 李恒默을 제외한 두 사람은 3방의 '工匠秩'에 나오는 玉刻手이기도 하다. 이는 특별히 玉刻手와 石刻手의 작업영역이 다르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1849년 7월 2일자 手本에 각수에게 소용되는 물자를 진배토록 요구한 내용이 나온다.

다음으로 誌石所에서 제작을 맡은 誌石은 모두 24장으로 각 장은 길이가 1尺 7分, 너비가 8寸 4分, 두께가 1寸이었다. 매 10行은 極行 18字, 平行 17字를 새겨 넣게 정해져 있었다. 각수가 誌石에 글자를 새길 때 소용되는 물자는 1849년 8월 5일자 手本에 나와 있다. 表石所와 誌石所의 내용을 아울러 정리하면 <표 7>과 같다.

<표 7> 표석소와誌석소 각수의 소용제구

품목	수량	
	表石所	誌石所
二立付長木床	2坐	-
飛陋	3升	1升
山猪毛	4兩	3兩
草省	2箇	-
刻刀	20箇	40箇
刻釘	40箇	-
水團了赤	10箇	-
强礪石	3塊	-
中礪石	3塊	-
延日礪石	-	2塊
祥原礪石	-	3塊
尾箆	3柄	-
熟猿皮	1領	반반張
紬手巾	2件	-
布手巾	2件	1件
木/果瓢	2箇	각 1箇
陶東海/所羅	3坐	각 1坐
白休紙	1斤	1斤
雪綿子	-	1兩
白木二幅袱	-	26件
去核	11斤 반	-
苧絲	1兩5錢	-
生木	100尺5寸	-

<표 7>에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表石所와 誌石所의 각수에게 필요한 물자는 19건과 12건으로 그 품목에서부터 차이가 난다. 따로 誌石所 각수 인원에 대한 기록이 없어서 선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중복된 인원이었을 가능성이 크다. 石材가 달라서 소용되는 품목에서 차이가 나는 걸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솟돌이다. 表石所에서는 强礪石과 中礪石이 필요했으나, 誌石所에서는 그보다 부드러운 延日礪石, 祥原礪石을 필요로 했다.

誌石所의 ‘用還秩’을 확인해보면 刻刀 40箇, 祥原礪石 3塊, 木果瓢, 陶東海, 所羅가 그 중에 포함되어 있고, 表石所의 경우에도 ‘用還秩’이 나와 있는데, 여기에는 그보다는 많은 刻刀, 刻釘, 水團了赤, 强礪石, 中礪石, 山猪毛, 木果瓢, 尾箆, 陶東海, 所羅 등이 열거가 되어 있다. 한 번 쓰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다시 사용하는 물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別工作에서 만들어 3房과 表石所, 誌石所의 각수가 쓰도록 제공한 도구와 물자를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표 8> 별공작 제작의 각수소용제구

품목	수량		
	三房	表石所	誌石所
長登床	12坐 중 4坐 (8坐 前排)	-	-
二立付長木床	-	2坐	-
玉沙志板	25立 중 11立 (14立 前排)	-	-
刻刀	60箇 중 49箇 (11箇 前排)	20箇	40箇
刻釘	60箇 중 40箇 (20箇 前排)	40箇	-
水團了赤	20箇 13箇 (7箇 前排)	10箇	-
中櫝	-	2部	-
大了赤	-	2箇	-
大鐵板	-	4立 중 2立 (2立 前排)	-
印出了赤	-	7箇	-

<표 8>을 통해서 別工作은 과거에 만들어져서 이미 진배한 것을 제외하고, 부족한 것을 새로 만들어 三房이나 表石所, 誌石所에 제공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대체로 그 품목들은 각수들에게 소모품이 아니라 기본적인 도구라 할 만하다. 여기에는 당초 表石所에서 각수에게 필요할 것으로 판단해서 요구한 물자 외에도 中櫝나 大了赤 등이 포함되어 있다. 초기에 요구된 것이 반드시 그 전부는 아니었고, 많은 물자가 소용되는 國葬의 일에서 소용된 물자를 빠짐없이, 정확하고 완벽하게 기록하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이었음을 미루어 짐작하게 한다.

4. 所用諸具의 類型

木板과 木活字, 玉冊과 玉寶, 表石과 誌石에 글자를 새긴 木刻手와 玉刻手, 石刻手의 所用諸具는 刻刀나 망치, 숫돌과 같은 기본 도구, 登床이나 못과 같은 보조 도구, 山猪毛나 각종 천과 같은 소모품, 그릇이나 상자와 같은 용기류, 숯과 같은 연료 등으로 구분해볼 수 있다. 모두 53종에 이르는 다양한 품목을 그 다섯 가지 유형에 따라 정리하면 <표 9>와 같다.

<표 9> 유형별 각수의 소용제구

품목	木刻手	玉刻手	石刻手	
기본도구	刻刀	○	○	○
	刀子		○	
	刻釘		○	○
	釘		○	
	刻機	○		
	校正釘	○		
	水團尔赤		○	○
	大尔赤			○
	印出了赤			○
	强礪石		○	○
	中礪石	○	○	○
	延日礪石	○	○	○
祥原礪石			○	
보조도구	長登(臺)床	○	○	○
	沙志板		○	
	大鐵板			○
	正布(臺床布)	○		
	臺床朴只3寸釘	○		
	5寸釘	○		
	2寸釘	○		
	2分召史	○		
	3分召史	○		
鏡子鐵(金)	○			
용기류	陶所羅	○	○	○
	陶東海			○
	木果瓢		○	○
	水甕	○		
	前排櫝子		○	
	中櫝			○
소모품류	山猪毛	○	○	○
	家猪毛		○	
	白(休)紙		○	○
	(熟)獐皮		○	○
	綿紬手巾		○	○
	(布)手巾布		○	○
	破帳布		○	
	常綿子		○	
	雪綿子			○
	去核			○
	生木			○
二幅袱(白木)			○	

품목	木刻手	玉刻手	石刻手
소모품류	苧絲		○
	磨正含木		○
	草省		○
	尾箒		○
	木賊	○	
	膠末	○	
	黃蜜		○
	眞粉		○
연료류	飛陋		○
	炭	○	○
	燒木	○	
	燈油	○	

〈표 9〉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바와 같이 木刻手, 玉刻手, 石刻手が 공히 필요로 했던 도구 및 물자는 刻刀와 登床, 中礪石, 延日礪石, 山猪毛, 陶所羅 등 여섯 가지다. 그러한 물품이 刻手が 일할 때 가장 필요로 했던 기본 도구라고 해석하는 게 어찌면 더 타당한 결론일 수도 있다.

각수별로 쓰인 품목들을 비교해보면, 木刻手보다는 玉刻手, 玉刻手보다는 石刻手が 더 소소하게 필요로 했던 물자가 많았다는 건 흥미로운 결과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들이 수건이나 솜과 같은 소모품에서 좀 더 세분화되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각수끼리 일의 차이가 刻刀의 종류에서 드러나지 않고, 오히려 솥돌에서 드러난 사실은 의외다. 木刻手는 굳이 強礪石과 같은 거친 솥돌이 필요하지 않았고, 玉刻手는 거친 것뿐만 아니라 부드러운 솥돌, 보통의 솥돌 세 가지가 다 필요했으며, 石刻手는 表石과 誌石을 구분해서 전자는 보통이상의 거친 솥돌, 후자는 부드러운 솥돌, 그리고 특별히 祥原에서 나는 솥돌까지 필요했다. 刻刀에 대해서도 유사한 결론을 얻기 위해서는 문헌이 아니라 경험을 통한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5. 結 言

1850년 전후에 작성된 다섯 가지 의례를 중심으로 당시 木刻手, 玉刻手, 石刻手が 사용했던 도구와 물자의 성격과 특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木刻手와 玉刻手, 그리고 石刻手의 所用諸具는 모두 53종에 이르며, 이를 刻刀와 망치, 솥돌 등을 포함하는 기본도구, 登床과 못 등을 포함하는 보조도구, 山猪毛와 천 등을 포함하는 소모

품류, 그릇과 상자를 포함하는 용기류, 그리고 솥과 찜감, 등유를 포함한 연료로 크게 나누어볼 수 있겠다.

둘째, 그들이 공히 사용한 것으로 드러나는 도구와 물자는 刻刀와 登床, 中礪石, 延日礪石, 山猪毛, 陶所羅 등 여섯 가지이다. 전체적으로 木刻手보다는 玉刻手, 玉刻手보다는 石刻手에게 더 소소하게 소용되는 물품이 많았다.

셋째, 각수의 所用諸具 중 刻刀와 망치, 솥돌, 용기류는 다시 사용될 물자였다. 別工作은 과거에 이미 만들어진 것을 제외하고 부족한 양을 새로 만들어 각수에게 제공하기도 했다.

넷째, 甘結이나 稟目을 통해 요구된 각수의 所用諸具는 전례에 근거해서 사전에 계획되고 작성된 것이어서 실제 소용된 것과는 다소의 차이가 나기도 했다.

다섯째, 儀軌에 각수의 所用諸具가 기본적인 품목을 제외하고 단지 소모품에 불과한 것들만 기입되어 있다면, 이는 당시 각수들이 다른 일을 같이 수행하고 있었다고 해석할 만하다.

여섯째, 각수들이 사용하는 솥돌이나 수건, 망치, 심지어 돼지털까지도 그 종류가 구분된 반면, 다른 재료에 글자를 새긴 목판 각수, 목활자 각수, 옥책 각수, 옥보 각수, 표석 각수, 지석 각수 등에게 가장 기본적인 도구였던 刻刀는 의궤에서 그 종류가 전혀 세분되어 기술되지 않았다. 각수들이 어떤 형태로든 그걸 다듬어 썼는지 여부는 후속연구를 통해서 밝혀내야 할 바다.

<참고문헌>

- 『國朝寶鑑監印廳儀軌』 1783. 1848.
- 『璿源譜略改修正時校正廳儀軌』 1739.
- 『璿源譜略修正儀軌』 1848. 1850. 1853.
- 『純元王后加上尊號都監儀軌』 1852.
- 『哲宗實錄廳儀軌』 1865.
- 『憲宗國葬都監儀軌』 1849.
- 『憲宗實錄廳儀軌』 1852.
- 김상호, 『조선의 각수 연구』, 경산: 대구대학교 출판부, 2013.

